____월 ____일

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

남들이 좋은 건 이미 다 찍어서 더 이상 새로운 소재는 없다고 한다. 또 사진을 배울 땐 '무엇을 찍을까'보다 '어떻게 찍을지'부터 고민하라고도 한다. 하지만 사진은 촬영 대상이 정해지면 어떻게 찍을지 방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렌즈나 광선보다 촬영할 대상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 (생략)

전시 사진가인 정지필은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이는 오래된 동전 앞면을 대형카메라로 찍어 백원짜리 동전 한 개를 버스 타이어만 한 크기 사진으로 뽑았다. 동전 속 얼굴들은 세월의 흔적을 타서 누렇고 까만 때가 끼고 상처가 서로 다른 모습들로 변해 있었다. (생략)

– 조선일보 2017년 4월 6일





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

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